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
(김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6
----------	------

발의년월일 : 2018. 10. 22.

발 의 자 : 김진숙 의원 등 31명

1. 주 문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등 사용 용도별로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음. 이 중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었음.
- 올해 여름은 111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어 에어컨 등 냉방장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음.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기 에너지를 주택용 전기에만 차별적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 개선을 건의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

2018년 8월 관측,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9.8℃까지 치솟으며 한반도 역사상 최고 무더운 해로 기록된 1994년의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웠다.

온열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가축폐사에 농작물 병충해까지 이르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되어 마음 편히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되었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문제의 뿌리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사용에만 무리한 누진제를 적용해 왔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용 전기에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3단계, 1979년 12단계, 1995년 7단계, 2005년 6단계, 2016년 3단계로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쳤으나, 40년 이상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년 7월과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상한선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 계층 특별 지원 확대, 향후 다양한 요금 선택권 마련 등 단계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나, 아쉽게도 누진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시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폭염 대책보다는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는 국민을 위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징벌적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진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빈곤 그리고 복지의 개념에 에너지가 포함 되었다. 생존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의 출발점이다.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18. 1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